



**Stop & Clean**  
불법 스포츠 도박 추방 캠페인

**“불법 스포츠 도박,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 관련기사 4면

# 스포츠동아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sportsdonga.com 20판



흥련 시대에 드러운  
삼진 양산의 딜레마  
8면

## 새 킬러 석현준 ‘황태자를 위한 조건’

### 리 월드컵 2차예선 공격수 중용

지난시즌 포르투갈서 6골...5년만에 재승선 “골가뭄 해결”...슈틸리케의 선택 증명해야 적응력 부족·약한 멘탈 오명 극복도 숙제 “늘 꿈꿔온 기회...달라진 나를 보여주겠다”

축구국가대표팀은 2015동아시아컵(1~9일·중국 우한)에서 1승2무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모든 게 만족스럽진 않았다. 중국과의 1차전(2-0)을 제외하면 한국축구의 고질인 ‘골 결정력 부족’이 드러났다. 일본과의 2차전(1-1)에선 페널티킥으로 득점했고, 북한과의 최종전(0-0)에선 골 맛을 보지 못했다. 당시 울리 슈틸리케(61·독일) 대표팀 감독은 “손흥민(23·레버쿠젠)과 구자철(25·마인츠)이 합류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고, 공격력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였다. 철저한 무명 에머랄드 대표팀에서 신데렐라가 된 이정협(24·상주상무)을 발탁한 슈틸리케 감독의 선택에 시선이 모아졌다.

그리고 고심의 결과가 공개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2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라오스(9월 3일·화성), 레바논(9월 8일·베이루트)과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출전할 23명의 대표선수를 발표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포르투갈 1부리그에서 활약 중인 석현준(24·비토리아FC)을 불러들였다. ‘슈틸리케호’ 출발 이후 첫 승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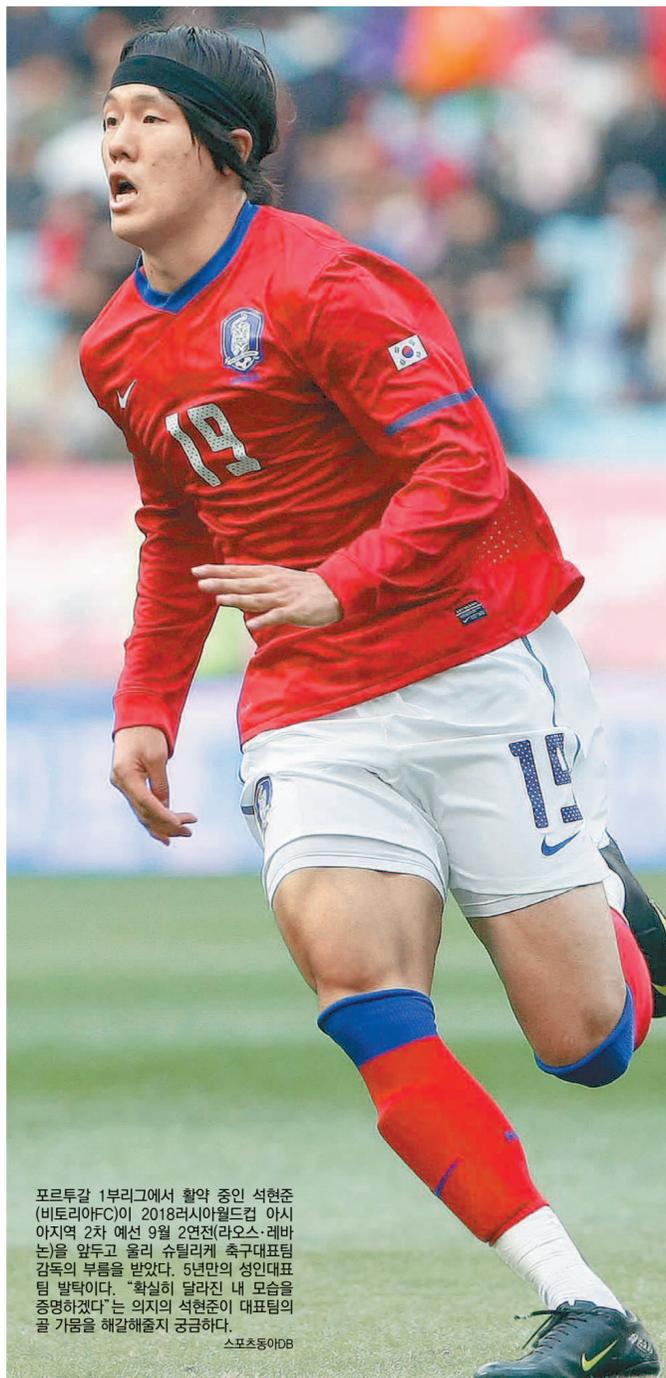
석현준의 이름은 그리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유럽에서 오래 활약했지만, 인지도가 높지 않다. 대표팀 경력도 짧다. 2010년 9월 7일 이란과의 평가전이 처음이자 마지막 A매치 출격이다. 그러나 석현준은 슈틸리케 감독의 레이다망에 있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비토리아 이적 이전부터 (석현준을) 알고 있었고, 체크했다. 동아시아컵의 문제 중 하나가 골 결정력 부족이었다. 새 얼굴들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싶어 그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석현준은 CD 나시오날(포르투갈)에서 올 1월 비토리아로 이적했다. 계약기간은 2018년 6월까지다.

물론 석현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표팀 내 경쟁력 입증과 실력 발휘는 두 번째 문제다. 우선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과 막연한 편견부터 깨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석현준은 기량과 재능에 비해 ‘성공하지 못한’ 유망주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용인 신갈고에 재학 중이던 2009년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 아약스 암스테르담에 입단해 세례이션을 일으켰으나, 그게 끝이었다. 이후 이국저쪽 떠도는 ‘저니맨’이었다. 2011년 여름 호르닝엔(네덜란드)으로 옮긴 뒤 2013년 1월 CS마리투(포르투갈)로 떠났다. 다시 반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알 아흘리 유니폼을 입고, CD나시오날을 거쳐 비토리아로 이적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도 적응하지 못 한다’, ‘멘탈이 프로답지 않다’는 악평이 따랐다.

생애 2번째 국가대표 발탁 소식을 부모님을 통해 접한 석현준은 “지난 시즌(30경기·6골)을 계기로 자신감을 찾았다. 날 향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다는 것도 안다”며 “대표팀은 항상 간절히 소망이자 꿈이었다. 다시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새로워진, 확실히 달라진 내 모습을 증명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 관련기사 3면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포르투갈 1부리그에서 활약 중인 석현준(비토리아FC)이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9월 2연전(라오스·레바논)을 앞두고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5년만의 성인대표팀 발탁이다. “확실히 달라진 내 모습을 증명하겠다”는 의지의 석현준이 대표팀의 골 가뭄을 해결해줄지 공망하다.

스포츠동아DB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 “불펜 흑사? 연습 투구수라도 줄여라”

‘불펜 20승’ 삼성 김현욱 코치의 조언 “밸런스 괜찮으면 공 5개면 충분하다”



삼성 김현욱(45·사진) 트레이닝코치는 ‘20승 투수’ 출신이다. 1997년 쌍방울에서 20승2패6세이브를 기록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번의 승리를 모두 구원등판으로 따냈다는 점이다. 그해 불펜에서 무려 157.2이닝을 소화하면서 웬만한 선발투수들보다 많이 던지고, 많이 이겼다. 역대 20승 투수 가운데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펜투수였던 김 코치가 1996년 99.1이닝, 1998년 129.1이닝, 1999년 93이닝, 2000년 109이닝, 2001년 95.2이닝을 각각 던졌다. 70이닝을 넘긴 해가 8시즌, 그리고 그 가운데 3시즌 동안 100이닝을 넘겼다. ‘고무팔’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다. 삼성이 김 코치에게 투수들의 보강운동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이유다.

김 코치의 구원 20승이 탄생한지 18년이 흐른 올 시즌, KBO리그는 다시 불펜투수들의 ‘흑사’ 또는 ‘투혼’으로 연일 화제다. 24일까지 한화 권혁이 65경기에서 94.2이닝을 던지고 있어서다. 심지어 권혁의 올 시즌 누적 투구수는 1729구에 달한다. 1위 삼성의 필승불펜 안지만(968개)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NC 최규강(1274개)이나 넥센 조상우(1211개)처럼 상위권 팀에서 가장 자주 등판하는 셋업맨들과 견주어도 월등하게 많다.

김 코치는 “내가 뭘 때는 무조건 나가라면 나가서 던지던 시절이다. ‘흑사’ 같은 생각은 하지 못했고, 승리하기 위해 던지는 게 먼저였다”며 “요즘 선수들은 그렇게 하려면 못 한다. 보강운

동을 잘하면 후유증 없이 오래 던질 수 있으니, 최대한 선수를 개인의 특성에 맞게 관리해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예전 선수들의 ‘희생’은 ‘투혼’으로 포장될 때가 많았다. 특히 불펜투수들은 쓰임새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 팔이 빠져라 열심히 던지다가 만 30세만 넘어도 ‘노장’으로 분류됐다. 만 35세에 은퇴한 김 코치는 “20승을 할 때 연봉이 4200만원이었다. 이듬해 딱 2800만원이 올라 7000만원이 됐다”며 “그것 때문에 동료들에게 ‘내가 그만큼 받으면 우린 어떡하느냐’고 욕도 많이 먹었다. 그땐 팀 사정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금으론선 상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다.

요즘 투수들은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뤄져 있고, 몸값도 훨씬 높아졌다. 무엇보다 과거의 선배들보다 훨씬 오래 선수생활을 한다. 한국 나이로 불혹인 투수 임창용(삼성)이 한창 때인 후배 안지민(32)을 향해 “예전 같았으면 너도 벌써 은퇴했을 나이”라고 농담했으 정도다.

▶ 4면으로 이어집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 한국영화 1000만돌파의 뒷...편식과 독식

‘암살’·‘베테랑’ 잇단 흥행...영화계 우려 “관객 편식·대기업 독식...시장 위기 자초”

한 달 사이 누적관객 1000만 명을 모은 한국 영화가 두 편이나 탄생한다. 15일 1000만 클럽에 합류한 ‘암살’(감독 최동훈·제작 케이퍼필름)에 이어 ‘베테랑’(감독 류승완·제작 외유내강)이 29일~30일 사이 누적관객 1000만 명을 넘는다. 한국영화 관객이 연간 1억 명을 돌파한 2012년 이후 ‘상시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한 달에 두 편이 1000만 클럽에 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다룬 ‘암살’과 재벌 3세와 회사의 대결을 그린 ‘베테랑’의 성공은 올해 심화된 한국영화의 흥행부진을 말끔히 털어낸 성과로 주목할 만 하다. 오락성을 기본으로, 메시지를 더한 작품성과 장르의 완성도까지 갖춘 관객의 선택적 선택을 받았다.

두 영화의 1000만 릴레이 흥행으로 8월은 연중최고 성수기란 사실도 입증됐다. 23일 기준 8월 한국영화 점유율은 65.2%(영화진흥위원회). ‘명량’이 흥행질주를 펼친 지난해 8월(77.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 영화의 편식·흥행 양극화 우려

하지만 이 같은 흥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 그 이면에 자리 잡은 관객의 영화 ‘편식’, 대기업 계열 멀티플렉스 극장체인의 노골적인 상업주의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영화계에서는 “시장 전체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암살’과 ‘베테랑’의 흥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관객의 특정 영화 편식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두 영화는 티켓파워를 과시해온 스타의 출연, 검증 받은 감독의 연출, 최대 성수기 개봉까지 ‘3대 흥행 조건’을 모두 갖췄다. 물론 관객이 좋아할 조건이지만 한편에서는 “패턴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중견 영화제작자는 “작년 ‘명량’이 7~8월 극장 규모를 키웠고, 올해 두 편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여름=대박=대박’의 흥행공식이 더욱 확고해져, 이를 따르려는 움직임도 많다”며 “냉정한 시장논리로 볼 수 있지만 ‘명량’ 이후 극장이 비수기와 성수기의 흥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활발히 제작 중인 영화 대다수는 100억원 규모의 대작이다. 총제작비 50~60억 원대 중급영화는 찾기 어렵다.

▶ 10면으로 이어집니다

이해리 기자 gori1024@donga.com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형일입니다.  
남성이 당당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비련다면?  
‘뉴맨’이 확실한 패트를 드립니다.  
강한남자! ‘뉴맨!’입니다.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특허 제 10-0756243 호  
발명희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패트

사용당일 나타나는 막강 파워!

1. 힘이 약하다 ➡ 본인도 놀라는 막강 파워!
2. 잘 시든다 ➡ 끝까지 강력하게!
3. 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록!
4. 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 강하고 단단하게!

세상에 없는 반쯤제품도! 효능의 자신감입니다.

출시10년! 반품률 4%대! 세상에 없는 반쯤제품도 만들게 된 원동력과 자신감입니다.

**상당함과 통화가 필요없는 반쯤 시스템**  
15일간 사용해보고 반품을 원하시면 반품이라는 (반품택배비 고객부담) 메모와 계좌번호, ‘뉴맨’을 보내주시면 도착 다음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보다 반품이 더 간단한 세상! ‘뉴맨’이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뉴맨’의 광고를 접하면서 이런 작은 반지가? 에이 설마? 라는 의심이나 불신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유수의 스포츠신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를 통하여 꾸준하게 광고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구매보다 더 간단한 반품제도라면 이제 신뢰해서도 되지 않을까요.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http://www.newm.kr)

**T. 1588-3346, 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엔케이스포츠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

평상시 사이즈 | 뉴맨 주머니 제작

6.5018	1호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018	주머니 제작